

협회 독립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 I



박인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3대 회장

위생·냉난방 설비공사 161개사, 기계기구설치 공사 39개사로 단종공사 전국협의회 참여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건설규모 확대 및 건설수요 증대의 사회적 배경과 함께 건설업체 난립, 공사 품질저하, 기계시공의 필요성, 불법하도급 성행 등 건설업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하도급 양성화 및 단종공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75년 12월 31일 제8차 건설업법 개정으로 단종공사업이 탄생되어 기존의 일반공사업, 특수공사업, 그리고 단종공사업 면허가 신설되면서 하도급 양성화와 함께 건설업의 전문화·계열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건설 분야에서는 1976년 12월 14일 토공사업을 시작으로 18개 업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면서 협의회 구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설비업계는 위생·냉난방 설비공사 161개사, 기계기구설치공사 39개사로 단종공사 전국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종공사업 면허가

1982년 7월 1일 전문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단종공사협의회도 전문건설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문업계는 1976년 657개 면허로 출발하여 10년이 지난 1985년 5월 1일 현재 4,874개 업체, 8,639개 면허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회원 비율이 506개 업체 : 4,874개 업체로 회원 수 전체의 90.6%를 전문건설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협회에 예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의원 구성에 있어 일반건설 71명, 전문건설 19명으로 구성되는 등 구조적으로 매우 불평등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계는 권익옹호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제단체로서의 독립협회 설립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문건설협의회는 독립단체 설립을 위해 정부 각 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983년 5월 18일 경제기획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전문건설협의회를 건설협회에서 분리시켜 독자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전문건설협회의가 독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문건설협회의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문건설협회가 드디어 1987년 10월 15일 탄생되었습니다.

1986년도 품셈 중 덕트 43%, 기계실 45%, 동관 25% 감액

우리 설비업계가 단종전국협의회 소속 당시였던 1985년 어느날, 1986년도 품셈이 발표되었는데 Duct 품이 43%, 기계실 품이 45%, 동관 25% 등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 때 나는 설비업계 간사 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품셈이 떨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때 당시만 해도 도대체 품셈은 어느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조차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단종협의회 사무실을 찾아가 마침 기계분야 담당자인 정일량 사원을 만나서 전후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그는 이미 그 사실을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에게서 품셈 업무 수행기관은 다름아닌 공업진흥청 국립시험연구원에서 담당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일량 사원과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시험연구원에 도착해서 곳곳을 둘러보았지만 공산품 즉, 타이어, 자전거, 펌프, 그 외 특수용 기계기구 등의 성능검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관청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시험연구원은 건설분야의 품셈업무와는 거리가 먼 관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품셈 담당 사무관은 이화석 담당관이고 그 위에는 김진열 부장(국장)이었습니다. 마침 자리에 있던 이화석 담당관에게 전후사정을 얘기했더니 윗분(김진열 부장)이 안계시니까 내일 다시 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찾아가서 국장과 많은 설전을 하였습니다. 국장은 우

리에게 Duct는 샵 제작에 의해 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품이 깎여도 된다는, Duct 품의 감액 이유에 대한 말도 안되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장에게 외국에서의 기계수입은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현실은 생각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몇번을 찾아가서 품셈 원상회복에 대한 방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건의하였습니다. 미운정도 정이라고, 우리업계의 사정을 차츰 이해하는 쪽으로 유도한 결과 시험연구원에서는 올 연말에 품셈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 회의에 참석하여 논의해 보자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정일량과 나는 매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품셈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업계는 왜 이러한 어려움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때는 우리업계가 단종공사협의회 시절이라 어디에서든 인적,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의 발단은 우리업계에 종사하는 한 업체가 서독에서 자동화기계를 구입하여 샵 제작을 개시하면서 감사원 기계담당부서에 품이 많이 절감된다는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각고의 노력 결과 품이 '장당 → ㎡당'으로 바뀌어

드디어 1984년 12월 16일 오후에 품셈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나는 품셈위원회 회의에 무조건 찾아가서 16명의 품셈위원 한분, 한분에게 90° 가까이 절을 하면서 나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업계의 열악한 환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원들은 대부분 발주관서 기계건축설비 담당자이기에 우리업계의 사정을 조금

씩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검찰청에서 참석하신 한 위원님이 가장 연장자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하셨고, 국방부와 한전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이해하셨습니다. 또한 김영호 회장(前 대한설비공학회 회장)께서 공조학회 및 건설부 중앙건설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첫 해 회의에서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지만 할증으로 품을 27% 계산하도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어서 결국 품셈이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 날 얼마나 감사한지, 저녁식사를 대접하면서 우리는 내년을 기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품셈위원님들을 개별로 찾아다니면서 당위성 홍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의도 MBC 사옥, 그리고 코오롱 을지로 삼영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여러 차례 현장실사를 거쳐 일일 출역인원과 시간당 작업량,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까지 일일이 체크하고 계산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침내 한전 주택공사 품셈 위원들로부터 “감액된 품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증언이 참고가 되어 품셈 원상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때 품은 장당에서 m^2 로 바뀌었습니다. m^2 로 계산하다 보니 장당보다 오히려 품이 많아져서 더 유리해졌습니다.

우리업계에서 그 때의 품셈을 지금까지 적용받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 했던 것이 생각나며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지 말고 늘 고맙게 생각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바로 이화석 담당관과 박영식 과장, 김진열 부장입니다. 나는 이분들의 책임감과 공정한 업무처리에 항상 존경하는 마음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수십 차례 연구원을 방문하는 등 공들여 답을 쌓은 결과 1987년도에 완전히 원상복구 함으로써 우리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날은 저도 2년여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견뎌나가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았던 생각을 하니 온몸에 전율과 희열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나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화석 담당관과 품셈 위원들에게 오늘 저녁 만찬을 설비업계 박인구가 베풀겠다고 말씀드리고 곧바로 김진열 원장을 찾아가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녁 만찬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승락하시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녁 만찬과 환담이 끝날 무렵 김진열 원장께서는 모두의 행운을 빌고 건배사를 하시면서 공업진흥청에서의 품셈업무는 오늘이 마지막이며, 건설부로 이관되었다는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들은 섭섭함을 금치 못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미운정, 고운정을 아쉬워 했고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후 시험원에서 담당했던 품셈업무는 영원히 사라지고 1987년도 품셈업무부터는 건설부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 때 당시 성의껏 지원해 주신 분들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한종화 회장, 그리고 우리업계 대한기계(주) 송중근 사장, 이동락 회장께서 적극 지원해주셨음에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일반 건설업계에서도 품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일반건설협회 기술부에 품셈위원회를 조직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많은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대림산업, 동아건설, 경향건설, 한진중공업 등 많은 건설업체와


품셈의 원상회복에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서 이동락 회장께서는 ‘아,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이동락 회장께서는 “설비공사는 다른 공종보다 품질, 기능, 기술, 효율 등을 두루두루 살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설비협회의 분리, 독립의 싹은 이후 국가적인 큰 사건이 발생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6년 8월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건설공사 합리화 대책위원회’에 우리업계가 설비공사업계의 독립 협회 설립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건설부 품셈담당인 정삼정 사무관, 건설산업연구원 교수, 일반대학 교수, 그리고 설비업계에서는 박인구, 김덕수(삼연설비 사장)가 참여하였습니다. 15인으로 구성된 품셈위원회는 월에 한번씩 회의 겸 개최되어 향후 정부의 품셈위원회 개정사항 대비 및 분석, 추진에 전력을 다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품셈 원상회복으로 협회 독립의 싹 틔워

당시 설비공종 간사장이었던 이동락 회장께서는 품셈의 원상회복에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이동락 회장께서는 “설비공사는 다른 공종보다 품질, 기능, 기술, 효율 등을 두루두루 살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설비협회의 분리, 독립의 싹은 이후 국가적인 큰 사건이 발생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6년 8월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건설공사 합리화 대책위원회’에 우리업계가 설비공사업계의 독립 협회 설립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드디어 1987년 3월 33인의 지도위원으로 ‘설비공사협회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해 8월에는 전국의 설비공사 회원으로부터 협회 독립 동의서를 접수토록 하고, 10월에는 기계설비협의회(공조학회, 공조공업협회, 기술협회, 설비기술용역협회) 합동 회의에서 설비공사협회 설립 촉구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키로 하는 등 협회 설립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노병상 회장께서 많은 애를 써주신 덕분에 건설부 이규호 장관부터 최석운 건설진흥국장께도 많은 지원과 양해를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설비공사협의회는 19개 공종 가운데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협회가 제1대 때부터 서로간의 이해관계로 얽매임에 따라 혼미를 거듭하자 설비공사의 권익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독립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다져온 것입니다. 사실상 건설업법 개정에 업종별 공사협의회 설립을 명시케 한 것은 우리업계가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등을 상대로 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업계가 잊지 않고 늘 감사를 드려할 분은 우리협회 독립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문희갑 경제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호 계속)